

“빛의 우연조차 사진의 필연으로 구현한다”

강운구 사진집 「우연 또는 필연」

사진가 강운구씨가 60년대 후반부터 찍어 작업실에 묻어 뒀던 작품들이 “시간의 때”를 벗고 오랜만에 사진집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열화당에서 출간한 「우연 또는 필연」이 그것이다. 이번 사진집은 76년에 낸 「내설악 너와집」(광장출판사), 87년에 낸 「慶州南山」(열화당)에 이어 세번째로 묶어내는 사진집이다.

사진가로서는 드물고 또 행복한 현상이지만 일종의 ‘매니아’ 층을 가진 그의 사진은 일견 차별하고 서정적이고 ‘초월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내장하고 있는 전연과 정신과 현실인식은 이 시대 어느 작가보다 더 울림이 있고 치열하고 깊이있어 보인다. 얼핏 보아 멀고 불가사의한 관계이고 평면예술이라 할 사진의 한 프레임 안에 함께 가두기가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측면의 공존이야말로 강운구 사진의 내밀한 국면이자 이른바 ‘매니아’들을 끌어당기는 강한 흡인력으로 보인다.

조세희씨의 말대로 “글로 쓸 수 있는 것은 찍지 않”고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것들은 찍지 않으며 세상과 현실에 없는 것들이면 만들어 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나 어느 글보다 더 극명하고 논리적으로 세상에 없는 것들보다 더 환상적으로 그만의 사진미학을 열어 가고 있는 강운구 씨는 이번 사진집에서 30여 년에 걸친 군부독재, 모순에 찬 산업사회, 파괴돼 가는 농촌,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사람들의 살이를 담아내고 그들 각각이 맺은 논리적 끈을 마디짓고 이으며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1장의 앞을 차지하는 7점의 사진(pp 21-28)으로 몰락해 가는 농촌과 전통사회의 한 측면을 家長과 소의 탁월한 類比로 상징하고, 사진집의 맨 뒤를 꾸미는 12장에서는 농촌을 뜬 후 연탄배달부가 된 家長이 산업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떤 방식과 존재로 편입해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끝맺는다. 그리고 보면 이 사진집은 1장의 상징과 12장의 극명한 현실 사이의 착잡하고 곱절많은 사연과 그 사연의 밑자리로서의 정치·경제·사회적 모순과 변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2장에서는 시골의 5일장을 보러 완행버스를 기다리고 또 버스를 타고 떠나는 일련의 시리즈 사진(pp.55-62)을 중심으로 해서 한없이 뻗은 길과 텅 빈 들녘을 담아내고 있는데, ‘떠남’에 대한 일종의 類比로 읽히는 장이다. 특히 완행버스를 타고 떠나는 시리즈 사진들



전라북도 정수군 장수면 수분리. 1973년.

이 단연 압권인데, 모두 4점으로 된 이 시리즈는 버스가 떠난 뒤의 마을의 행태그러함까지 보여줌으로써 ‘떠남’의 이미지만 아니라 거기에 일종의 ‘사회학’까지 불어넣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어촌의 지치고 곤핍한 삶이와 죽음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데, 3장에서 한 소녀의 불안하고 겁먹은 듯한 표정과 닮은 폭력적이고 급속적인 이미지의 대비(p. 77)로 어촌의 한 단면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형상하고, 4장에서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형상함으로써(p.111) 살이의 남루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5장은 전북 정수군의 한 마을인 수분리의 눈덮인 풍경을 눈(眼)이 시리게 담아낸, 강운구 사진의 아름다운 서정성과 사실성이 최고조로 끌어올려져 만난 사진이다. 강운구가 여기에 형상해낸 사진들은 60년대 김승옥의 ‘霧津’이나 70년대 황석영의 ‘森浦’를 현실 속 공간으로, 그러나 ‘수분리의 풍경’도 이른바 새마을사업 탓에 지금은 세상에 없다는 점에서 이 둘을 합친 더욱 신비한 사진 속 공간으로 형상해내고 있다. 이 둘을 합쳤다는 것은 그 서정성은 ‘무진’과, ‘개밭’로 없어졌다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삼포’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6장과 7장에는 전남 보성군과 전북 익산군의 시골풍경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설리의 내설악을 담은 사진들이다. 이 중에서 내설악의 농부 얼굴(p.145)에 맺힌 땀방울의 극사실적 드러냄은 노동의 수고와 그것의 희열이 어떤 방식으로 행복하게 만나 공존하는가를 탁월한 사진수법으로 표상한다. 그리고 같은 인

물의 손을 찍은 사진인 듯, 타들어 가는 담배꽁초와 닮아 가는 손톱 끝의 이미지적 유사성을 카메라의 극명한 부각으로 끌어냄으로써 사진미학의 탁월한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8장에서 12장까지는 서울을 찍은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서울에 어떤 방식으로 편입하고 존재하는가(p.171, p.191, p.213, p.214-215), 도시에서의 삶이 시위를 진압하는

군화(p.186)와 선거(p.187, p.192, p.193)와 철문을 내리고 빗장 건 정치(p.189)와 도열해 밀로 내려 쫓힐 듯한 폭력(p.205) 아래 얼마나 가위눌려 있는가, 중산층의 화려하고 안정돼 보이지만(p.224-228, p.212, p.222-223) 피곤에 지치고(p.181) 갈길 몰라하는(p.199) 도시적 삶이 얼마나 허위에 차 있는 삶(p.208-209)이고 감힌 삶(p.203, p.219)인가, 등을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일러준다. 특히 말뚝에 묶인 개를 찍은 사진(p.219)은 산업사회 속의 인간의 운명을 압축해 보인다는 점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보인다.

‘우연 또는 필연’은 사진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강운구의 寫眞觀이자 이번 사진집의 한 유용한 독법도 되리란 점에서 흥미할 만하다. 곧 다큐멘터리 사진의 강령처럼 여겨져 온 이른바 ‘결정적 순간’이란 말 자체가 일종의 ‘우연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또 사진이란 세계가 드러내는 우연성을 포착해 자신의 사진미학을 완성해 가지지만, ‘결정적 순간’이나 ‘우연성’은 세계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순간으로 축적되고 이미지로 연결되어 논리적 끈을 맺을 때, 사진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필연성’으로 바뀐다

영국 BOOK HOUSE TRAINING CENTRE 연수생 모집

기 간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 94년 8월 9일~18일 (출판경영자과정) • 2차 : 94년 8월 23일~9월 2일 (출판실무자과정) 	BOOK HOUSE TRAINING CENTRE WANDSWORTH, LONDON

▲ 교육내용 : 출판관련전분야(경영·편집·재정·영업·유통 등)
 ▲ 참고사항 : 전 교육과정은 최신설비에 의한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과정 이수후 발급되는 BHTC수료증은 전세계 관련기관에서 취업 및 인사 등의 주요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참가비용 : 2,800,000원
 ▲ 참가신청마감 : 94년 7월 20일까지(1·2차 각 30명)
 ▲ 경비에 포함된 내역 : BHTC 연수비용 및 교재, 항공료, 전일정 식사, 현지교통비, 공항세, 보험료, 업체견학, 숙박비용 등

• 주 관 : BOOK HOUSE TRAINING CENTRE
 • 후 원 : BRITISH COUNCIL(영국문화원)
 • 수속대행 : (주)수진여행사
 TEL : 501-3443, FAX : 501-2965